

인식의 현상학적 성격

— 후설의 『논리연구』를 중심으로 —

김 기 복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머리말

후설에게 인식은 참인 대상이 주어지는 지향적 체험 방식으로써 존재자가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정하는 가장 탁월하고 우월한 지향적 체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설에게서 존재자의 존재를 해명한다는 것은 곧 존재자가 주어지는 인식 체험에 의거해서 해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후설은 논리적 대상에 대한 명석 판명한 이해를 추구한 『논리연구 II』에서 자신의 작업을 논리적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인 탐구”라고 하였다.

후설은 존재자가 참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존재자가 자기 소여성(Selbstgegebenheit)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후설에게 인식이란 존재자가 자기 소여되는 지향적 체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식은 이러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그의 수행에 긴장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경유해 나간다. 인식은 이러한 요소들과의 생산적인 긴장 속에서 비로소 대상의 자기 소여, 즉 명증적인 대상 파악에 도달한다. 후설은 무엇보다도 인식이 가지는 이러한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인식이 대상의 자기 소여에 이르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다양한 긴장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인식의 현상학적 본질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동시에 후설이 인식 현상을 해명하면서 해명의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 즉 대상에 대한 명증적 인식의 가능성을 부정하게끔 만드는 적대적 요소들

어떻게 제거하고 해결해 나갔는지를 추적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1. 지향적 체험의 구성요소들-파악작용과 감각내용

후설의 인식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향적 의식 일반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후설에 따르면 지향성이란 의식의 대상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지향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대상 간의 근본적 차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설은 의식과 대상 간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현상학적 해명을 위해 가장 단순한 지각 체험을 예로 삼는다.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지는 이 볼펜의 붉은 색과 해당 지각 안에 의심할 바 없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주관적인 색 감각의 음영들 사이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¹⁾

따라서 의식과 대상을 구별하게 하는 차이는 다양한 음영들(Abschattungen)의 연속체로서의 의식과 동일하게 머물러 있는 대상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의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체인 데 반해 지각이 지각하는 대상은 자기 동일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현상학적 사실이 이 두 영역 사이의 근본적 구별의 근거가 된다.

나는 예를 들어 이 상자를 보고 있지 나의 지각을 보고 있지 않다. 나는 계속해서 동일한 상자를 그것이 어떻게 돌려지고 향해지는가와 관계없이 보고 있다. ... 나는 상자를 계속 돌려보면서 새로운 의식의 내용을 갖는다. ... 따라서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체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대상이 지각되고 있다. 따라서 다시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체험된 내용은 지각된 대상이 아니다.²⁾

1) 『논리연구 II/1』, p.359.

즉 체험된 내용의 존재와 지각된 대상의 존재는 완전히 구별되는 두 개의 존재 영역이다.

이렇게 해명된 의식과 대상 사이의 차이를 조건으로 하여 지향적 체험이 수행된다. 그렇다면, 체험된 내용은 변화의 다양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각은 어떻게 동일한 대상을 지각하는가? 의식은 체험 내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상의 단일성을 이해하고 직관할 수 있는 것인가? 즉, 어떻게 변화의 다양체로서의 의식과 동일한 대상이 관계할 수 있는가? 후설은 나중에 이 관계를 “나타남과 나타난 것” 혹은 “인식 현상과 인식 대상” 사이의 “놀라운 본질적 상관관계”라고 불렀다.

다양한 의식이 어떻게 단일한 대상과 관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명은 『논리연구』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감각 내용(Empfindungsinhalte)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의식 내에서 동일한 의미에서 파악되고, 해석됨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의 내용 안에 감각 내용 이외에 감각 내용을 파악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악작용(Auffassung)은 감각내용의 혼란과 대립하여, 나에 대해 비로소 대상의 현존을 형성하는 의식 내의 기능이다. 만약 감각 내용만으로 의식이 구성되어 있다면 동일한 대상과의 관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 내부에는 변화 속에 놓여 있는 감각내용을 초과하는 잉여(Überschuß)로서 파악작용이 존재함에 틀림없다.

통각 작용(파악작용)은 감각의 거친 현존과 대립하여 체험 자체, 그리고 체험의 기술적 내용 안에 존재하는 잉여이다.³⁾

우리의 의식 체험은 감각내용의 혼란이 아니다. 의식은 항상 감각내용을 일정한 의미 방향에서 결합시킴으로써 동일한 대상과 관계하고 있다.

파악작용이 지향성이라는 의식의 초월 현상을 해명할 수 있는 일

2) Ibid., p.396.

3) Ibid., p.399.

차적인 장소로 지시된다. 만약 의식이 자신을 넘어 대상과 관계한다면, 그것은 의식내의 파악작용 때문이며, 이때 대상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더 나아가 파악작용은 의식의 대상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감각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즉, 파악작용은 감각내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신만의 독자적 본질을 지닌다.

… 다양한 내용을 감각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을 지각할 수 있다. 동일한 음을 우리는 한번은 가까운데서, 또 한번은 멀리서 들을 수 있다. 역으로 동일한 감각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또 한번은 저렇게 파악함으로써 다른 대상을 형성할 수 있다.⁴⁾

따라서 파악작용은 의식의 감각내용과 구별되는 자신의 본질을 가진다.

II. 인식 지향성의 조건 — 의미지향작용과 직관 사이의 구별

후설에 의하면, 인식은 의미지향작용(Bedeutungsintention)과 직관(Anschauung)을 통일하는 지향적 체험이다. 따라서 인식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두 작용을 구별해야만 한다. 의미지향작용과 직관 사이의 구별은 앞에서 해명된 지향적 체험의 구성 요소, 즉 파악작용과 감각내용 사이의 구별에 근거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후설은 의식의 지향적 성격을 해명하면서 파악작용을 인식 지향성의 일차적 기능 장소로 설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감각내용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파악작용이 의식 내에서 분리된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4) Ibid., p.395.

오직 파악작용만 존재하고 감각내용은 결여하고 있으면서도 대상과 지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지향적인 체험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즉, 파악작용이 의식 내에서 가지는 특권적인 위치에 근거해서 감각내용이 비어 있는 혹은 “공허한(Leer)” 지향적 체험이 하나의 독립적인 지향적 체험 중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체험 중에서 인식 지향성에 고유한 “공허한” 지향적 체험을 후설은 의미지향작용, 의미부여작용(Bedeutungsverleihende Akt), 혹은 의미작용(Bedeuten)이라고 부른다.

의미지향작용은 감각내용을 결여한 대상 표상이다. 이때 의미지향작용이 관계하는 대상은 감각적인 것이 없는 “사념된(vermeint)” 대상, 즉 한갓 사고된 대상이다. 의미지향작용은 감각내용이 주는 다양성의 혼란을 겪지 않고 대상과 관계하는 지향적 체험이다.

후설은 대신 의미지향작용에게 그가 결여하고 있는 감각내용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작용, 그리하여 한갓 사념된 대상을 명증적인 대상으로⁵⁾ 바꾸어주는 의식 작용의 종류를 직관이라고 불렀다.

... 인식 속에서 다른 지향의 충족을 위해 하나의 작용이 소환되는데, 즉 직관이다.⁶⁾

후설의 직관에 대한 정의는 오직 이렇게 의미지향작용과의 상관관계 속에서만 주어진다. 따라서 직관은 일차적으로 하나의 특별한 인식 능력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지향작용에게 적합한 감각 내용을 제공해주는 작용이라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의미지향작용과 직관의 대립을 감성적 직관과 범주적 직관, 즉 감성과 지성의 대립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의미지향작용과 직관의 대립은 감성 내에서는 감성적 의미지향과 감성적 직관 사이의 대립으로, 지성에서는 범주적 의미지향과 범주적 직관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따라

5) 명증(Evidenz)이란 대상이 한갓 사념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여성의 양상에서 현전하는 것을 말한다.

6) 『논리연구Ⅱ/2』, p.572.

서 의미지향작용과 직관의 대립은 위계화된 두 개의 인식 능력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각각의 인식 능력 안에서의 대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⁷⁾

후설은 먼저 의미지향작용과 직관이 그 본질에 있어 서로 혼동될 수 없는 두 가지 지향성임을 가장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끌어내고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경험은 표현 의미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는 어떠한 지각의 도움 없이도 지각된 것에 대한 표현에서 의미를 이해한다. 즉, 우리는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을 실제로 지각하지 아니하고도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정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진술의 의미를 실제로 정원을 바라보지 않고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각과 지각의 표현이라는 좁은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향적 체험 일반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한다.

듣는 자는 소망에 대한 진술을 항상 동일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소망을 공유하지 아니하고서도 판단하면서 추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⁸⁾

이렇게 일상적인 경험이 알려 주는 의미지향작용과 직관 사이의 구별은 이제 좀더 엄밀한 해명을 통해 입증된다. 나는 정원을 내다보고 지빠귀가 날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한 마리의 지빠귀가 날고 있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나는 동일한 지각을 하고서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표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검다”, “이것은 검은 새이다”, “이 검은 동물이 날고 있다”, “이 검은 동물이 높이 오르고 있다” 등등으로 말이다.

거꾸로 나는 지각된 내용이 계속 다양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을 사용하여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

7) Ibid., p.541.

8) Ibid., p.547.

지각하는 자의 매 순간의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는 지각 자체 [의 내용]을 변화시키며, 따라서 동일한 것을 동시에 지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은 결코 정확히 동일한 지각[내용]을 지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 지적된 것과 같은 차이는 지각 진술의 의미와는 하등 무관하다.⁹⁾

더구나 아예 지각이 결여되어도 표현의 의미에는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미지향작용과 직관 사이의 구별이 본질에 따른 구별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것과 반대로 표현이 계속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지각은 단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탈락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¹⁰⁾

우리는 신체와 감각기관이 제공하는 직관적 표상 없이도 표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의미지향작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식 내용 안에서 파악작용이 감각내용에 대해 가지는 자율성은 의미지향작용의 직관으로부터의 분리, 즉, 의식의 두 가지 중 사이의 관계에서 의미지향작용이 지니는 자율성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듯 파악작용이 감각내용과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의미지향작용이 직관 작용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인식 작용이란 이 분리를 통일하는 지향적 체험, 곧 의미지향작용을 충족시키는 작용이며, 동시에 이 분리가 불러일으키는 긴장을 조건으로 해서 수행되는 지향적 체험이다.

9) Ibid., p.550.

10) Ibid., p.550.

Ⅲ. 직관

1. 직관의 지향적 구조와 인식론적 우위

후설은 직관이 지니는 고유한 성격을 의미지향작용과의 차이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지향적 체험은 파악작용과 감각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미지향작용이 감각내용을 결여한 지향적 체험인데 반해 직관은 감각내용이 존재하는 지향적 체험이다. 직관은 다시 그림을 토대로 수행되는 그림지각(Bildwahrnehmung)¹¹⁾과 어떠한 토대도 없이 수행되는 지각(Wahrnehmung)으로 나누어진다. 후설은 우선 의미지향작용과 구별되는 직관의 지향적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서 직관의 일종인 그림지각을 의미지향작용과 비교한다.

의미지향작용과 그림지각은 두 개의 지향작용에 의해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같다. 의미지향작용은 우선 자신의 토대로서 지지대를 필요로 한다. 이 지지대가 곧 기호이다. 의미지향작용은 기호를 통해 사념된 대상에 도달한다. 따라서 의미지향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기호 자체에 대한 지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일차적으로 기호를 하나의 사물로서 지각하는 일이 발생해야 하며, 이 작용을 토대로 의미지향작용이 일어난다. 지각에 의해 파악된 지각대상을, 의미된 대상을 표현하는 사물로서 새롭게 파악할 때 비로소 이 지각대상은 기호가 된다. 따라서 의미지향작용은 사물에 대한 지각에 의해 정초된, 보다 높은 층의 작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지각 역시 그림에 대한 사물적 지각을 토대로 대상을 표상할 때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는 가족 사진을 보고 죽은 어머니를 표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작용은 작용의 토대가 되는 사물(기호와 그림)과 작용이 표상한 대상 사이의 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11) 후설은 『논리연구』에서 지각과 대비되는 직관으로서 그림지각을 예로 삼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림지각은 토대가 있고 지각은 토대가 없다는 사실은 아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림지각은 상상, 기억 등이 속하는 현전화 작용(Vergegenwärtigung)이고 지각은 현전작용(Gegenwärtigung)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의미지향작용에서는 작용의 토대가 되는 대상 곧 기호가 작용의 대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기호를 더 잘 지각한다고 해서 의미지향작용이 지향하는 대상이 더 충족되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 그림지각에서는 나타나는 그림이 더 완전할수록 더 충족된 대상을 표상할 수 있게 된다. 한 장의 사진보다는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동일한 대상을 더 충족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의미지향작용은 자신의 토대를 지니고 있지만 이 토대는 대상과 무관하다. 따라서 의미지향작용은 대상을 공허하게 사념할 수 있을 뿐이다. 반대로 그림지각은 자신의 토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토대가 표상된 대상과 닮아 있다. 따라서 대상은 공허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생생하게 나타난다.

또한 직관 가운데 지각은 그림지각과는 달리 대상을 “자체로 (selbst)” 나타나게 한다. 즉, 지각에서 대상은 기호나 상(Bild)을 매개로 나타나지 않으며 대상 자체가 나타난다. 지각에서는 감각 내용이 대상 자체의 나타남이며, 반면 그림지각에서 감각 내용은 대상과 유사한 그림을 토대로 생겨난 나타남이며, 이것을 파악함으로써 상상 대상을 표상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후설은, 그림지각은 상적인 유사성의 종합을 통해서 자신을 충족시키는 데 반해 지각은 사태적인 동일성(Gleich)의 종합을 통해 자신을 충족시킨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직관은 의미지향작용과 비교해 볼 때, 인식론적인 우위를 갖는다. 그것은 단지 정도 차를 가지는 우위가 아니라 절대적 우위이다. 왜냐하면, 의미한다는 것은 감각 내용이 전혀 없는 대상 표상이며, 따라서 전혀 인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의미지향작용은 스스로 충족적으로 대상을 표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직관을 필요로 한다. 오직 직관을 통해서 의미지향작용은 충족될 수 있다.

또한 지각은 그림지각에 비해 상대적인 인식론적 우위를 가진다. 그림지각은 물론 인식이지만 대상이 그 자체로서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지각에서는 대상이 그 자체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혼합된 표상작용(gemischte Vorstellung)으로서의 직관

비록 직관은 의미지향작용을 충족시켜주지만 직관 자신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이 충족에는 고유한 불안정성이 생겨난다. 이 불안정성의 해결이 곧 인식 수행의 의미이다.

직관은 지향적 체험으로서 파악작용과 감각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설은 이제 인식을 문제삼기 위해서 직관 속의 감각내용을 직관적 내용(intuitive Inhalte) 혹은 가득참(Fülle)이라고 부른다. 다시 직관적 내용을 지각의 경우에는 지각적 내용(perzeptive Inhalte), 그림지각의 경우에는 상상적 내용(imaginative Inhalte)으로 나누어 부른다. 직관이 지니는 불안정성은 바로 직관이 직관적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직관이 지니는 불안정성을 우리는 가장 탁월한 직관 방식인 지각을 통해 살펴보자. 지각은 대상을 “자체에서” 나타나게 하며, 따라서 모든 작용에 비해 인식론적 우위를 가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지각은 충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따라서 충족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작용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각에서 대상은 항상 단지 “앞면으로부터” 단지 “관점적으로 잘려서 음영져”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뒷면, 혹은 내부 등은 비록 다소간 규정된 방식으로 함께 사념되고 있지만, 우선 나타난 부분을 통해 단지 상징적으로만 지시되고 있을 뿐 지각의 직관적(지각적이거나 상상된) 내용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¹²⁾

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개별적인 지각은 오직 지각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순수 지각이 아니라, 지각적 내용과 비어 있는 내용의 혼합물일 뿐이다. 비어 있는 내용을 후설은 의미적 내용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다시 『논리연구』 속에서는 하나의 지각이 두 개의 표상형식의 혼합물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주어진 지각적 내

12) 『논리 연구 II/2., p.589.

용을 파악하는 직관적 표상 작용과 동일한 지각적 내용을 기호로 간주하여 아직 주어지지 않은 대상의 측면을 통각하는 의미적 표상 작용이 그것이다.

대상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로서의 대상은 개별적인 지각에서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제한된 측면만 지각의 지각적 내용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단지 사념되고 있을 뿐이다. 즉, 현재의 개별적인 지각에서는 대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완전성의 정도 차를 가진 음영(직관적 내용)만이 주어지고 대상의 나머지 측면은 주어지지 않으며, 나중에 등장할 새로운 지각에 의해 비로소 현실적이고 충족된 현재로 주어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각은 항상 순수한 지각이 아니다. 이것을 나중에 후설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기도 한다.

외적지각은 자신의 본질에 따라서는 수행 불가능한 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참칭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하나의 모순이 그의 본질에 속한다.¹³⁾

완전히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각은 원본적 의식이다. 하지만 외적 지각에는 주목할 만한 분열(Zwiespalt)이 존재한다. 원본적 의식은 단지 한 측면에 대한 현실적이고 본래적인 원본적인 의식과 원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른 측면에 대한 함께 — 사념함의 의식이라는 형식 속에서만 오직 가능할 뿐이다.¹⁴⁾

IV. 의미지향작용과 직관 사이의 통일로서의 인식

인식은 의미지향작용과 직관 사이의 통일이며, 의미지향작용을 충족시키는 작용이다. 인식이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미지향작용을 충족시켜주는 직관이 혼합된 표상 작용이라는 점에서 생겨난다. 과연 혼합된 직관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충족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능

13) 『수동적 종합』, p.3.

14) Ibid., p.4.

하게 할 것인가?

1. 총족 종합으로서의 인식

어떻게 직관이라는 혼합된 표상 작용을 통해 대상 전체에 대한 충족된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선 인식이 갖는 기본적 성격을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 지향적 체험 즉 의미지향작용과 직관은 혼동될 수 없는 본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각자 서로에게 환원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문제는 본질에 있어 구별되는 두 가지 지향적 체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 관계가 곧 인식이다.

대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미 의미와 직관 대상이 통일된 인식 대상을 가지고 있다. 내 앞에는 잉크병으로서 인식된 사물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잉크병이라는 의미와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 물건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인가? 대상의 관점에서 이 통일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후설은 대상의 관점에서 작용의 관점으로 탐구의 시선을 전향한다. 대상의 관점에서 불가사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의미와 물건 사이의 통일은 의미지향작용과 직관 사이의 지향적 통일에서 자신의 수수께끼의 원천을 발견한다.

우선 후설에 의하면, 두 지향작용 사이의 통일 관계는 단순한 병렬이나 합계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현상학적으로 단순한 합계 대신에 내적인 통일을, 그것도 하나의 지향적 통일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정당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충만한 말을 구성해 주는 작용과 사태를 구성해 주는 작용 두 개는 결과적으로 서로 지향적인 작용 통일성으로 결합된다.¹⁵⁾

따라서 각각의 지향작용은 그 자신 스스로 대상과 관계하는 지향

15) 『논리 연구 II/2』, p.562.

작용이면서 동시에 서로 지향적으로 통일되는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잠정적으로 세 개의 지향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 의미지향작용과 직관 각각의 지향작용이 각각의 대상과 맺는 관계, 둘째, 각각의 지향작용이 통일될 때, 두 개의 작용들 서로 간의 지향 관계, 마지막으로, 두 지향 작용의 통일로서의 인식이 가지는 대상과의 관계가 그것이다. 후설에 의하면 두 번째, 즉 두 개의 작용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지향 관계의 성격을 해명하는 것이 두 개의 지향작용의 통일로서의 인식의 본질에 대한 해명의 열쇠가 된다.

후설에 의하면, 두 지향작용들 사이의 통일이 가지는 지향의 성격은 충족통일(Erfüllungseinheit)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먼저 단순히 상징적으로 기능하는 표현에 나중에 (다소의 정도 차를 지닌) 상응하는 직관이 결합된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술적으로 고유한 충족의식(Erfüllungsbewußtsein)을 체험하게 된다. 즉, 순수한 의미작용은 무언가를 노리는 지향의 방식 속에 있으면서 직관화하는 작용에서 자신의 충족을 발견한다.¹⁶⁾

따라서 이러한 충족의 체험은 의미지향으로부터 직관으로의, 시간 안에서의 이행의 체험이기도 하다. 의미지향과 직관은 시간적인 선후 관계 속에서 등장한다. 따라서 먼저 의미지향이 그 자체로 우선 주어지고 그 다음 거기에 상응하는 직관이 덧붙는다. 의미지향과 직관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들은 시간 형식 속에서 의미지향작용으로부터 직관으로 이행하면서 통일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게 시간 형식 속에서 분리되어 있고 시간 경과 속에서 이행해 가면서 통일되는 인식 과정의 본질이, 두 개의 서로 구별되는 지향작용 사이의 지향적 지시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의미지향은 비어 있기 때문에 직관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불만족스러운 지향으로 나타난다. 이 지향은 자신에 적합한 직관에 의해 가득참으로써 만족되길 요구한다. 따라서 의미지향작용은 인

16) Ibid., p.566.

식 속에서 직관을 지시하고 바로 직관에 의해 가득참으로써 만족한다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의미지향작용과 직관 사이의 지향적 동일은 두 개의 작용을 실체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정립하고 두 개를 우연적이고 외적인 방식으로 마주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지향작용은 필연적으로 직관을 지향적으로 지시한다.

후설은 인식을 지향과 지향의 충족이라는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지향과 지향의 충족은 인식 현상의 고유한 전유물이 아니다. 후설이 보기에는 모든 지향적 체험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소망은 하나의 지향으로서 소망의 충족을 요구한다. 기대는 하나의 지향으로서 충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의식의 근본 성격으로서의 지향성은 대상과의 관계라는 성격 이외에 항상 충족을 요구하고 지시한다는 성격을 가진다. 인식 역시 이러한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인식의 고유한 성격은 이 지향과 충족의 관계가 가지는 고유성으로부터 규정된다.

한 종류의 작용 — 객관화 작용 — 은 다른 종들과, 그들의 영역에 속하는 충족 종합의 성격이 인식, 동일화, 일치하는 것들을 하나로 정립함이라는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통하여 구별된다.¹⁷⁾

따라서 지향과 충족 사이의 관계가 동일화, 혹은 일치라는 성격을 가질 때, 후설은 그것을 객관화 작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향과 충족의 관계, 즉 인식이라고 불렀다.

또한 더 나아가 지향과 충족의 관계로서의 인식은 항상 충족의 증가를 향해 움직인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인식은 단 한번의 지향의 충족으로 지향이 만족되지 않으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전한 충족을 향해 움직인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인식의 본성에 거역하지 않는 한, 인식은 절대적인 충족이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17) Ibid., p.584.

2. 인식의 토대로서의 직관들의 계열화

의미지향작용은 직관에 의해 충족되지만 직관은 단지 혼합된 표상들로서, 의미지향작용에게 그가 지향한 전체 대상의 한 측면만을 직관적인 내용 혹은 직관적인 나타남으로 가져올 뿐이다. 인식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상의 전체를 직관적인 나타남으로 가져오려고 한다. 따라서 인식은 하나의 직관에 그치지 아니하고 무수한 일련의 직관들을 관통해 나감으로써 이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식에게 직관적인 나타남이란 항상 나타남들의 연속체이다.

우선 인식은 나타남의 연속체를 관통해 나아가면서 대상 전체를 직관적인 나타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양한 직관들, 즉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직관들을 일정한 관점에서 평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직관들이 인식에 의해 종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직관은 인식의 이러한 수행 목표에 맞게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제 3의 지향적 계기로서의 직관적 내용 혹은 가득참

하나의 개별적 직관은 직관적 내용과 의미적 내용의 혼합물이다. 인식은 개별적 직관을 오로지 의미적 내용을 추상화하고 남는 잔여 즉 직관적 내용의 관점에서만 파악한다. 인식에게 하나의 개별적 직관은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직관적 내용의 크기에 따른 가치를 가질 뿐이다.

지각 속에서 대상은 이런 측면에서, 혹은 저런 측면에서 한번은 가까이에서 또 한번은 멀리서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 지향되고 있는데, 각각의 지각에서 대상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현전하는 크기들의 총합만큼 지향되고 있다.¹⁸⁾

따라서 인식은 오직 개별적 직관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직관적 내용에 따라 가치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적인 활동 안에 포섭할 토대를 형성한다. 이때, 개별적 직관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 내용을

18) Ibid., p.590.

동시에 후설은 표상이 지니고 있는 “가득참(Fülle)”이라고도 불렀다. 결국, 직관적 내용, 혹은 가득참이란 인식의 관점에서 규정한 개별적 직관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가득참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현상학적으로 해명해 보자. 우선 가득참은 우리가 감각 내용이라고 불렀던 것을 인식론적인 맥락에서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재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의미지향작용은 자신의 충족을 위해서 다른 종의 객관화 작용, 즉 직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미지향작용은 비어 있는 지향이고, 직관은 비어 있음을 채워주는 지향이다. 직관이 의미지향작용의 비어 있음을 채워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즉, 가득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직관 지향성의 정적인 구조의 본질 성격이다. 대신 의미지향작용은 비어 있음으로써 가득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의 본질 성격이다.

동일화하는 이러한 동일은 필연적으로 충족통일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그 속에서 의미적이지 않고 직관적인 지향은 충족시키는, 따라서 가장 본래적인 의미에서 가득참을 준다는 성격을 갖는다.¹⁹⁾

... 의미적 표상은 그 자체로 비어 있고 비로소 직관적인 표상이 그것을 가득참에 접근하게 하고 동일화를 통하여 그에게 가득참을 가져다준다.²⁰⁾

후설은 지각 혹은 그림 표상의 지향적 구조를 의미지향작용과의 대비 속에서 분석하면서 지향작용이 가지고 있는 지향적 본질인 파악작용의 질과 질료²¹⁾ 외에 또 하나의 제 3의 계기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질과 질료 외에 이 가득참은 표상의 특징적인 계기이다.

19) Ibid., p.607.

20) Ibid., p.607.

21) 주 6) 참조.

물론 오직 직관적 표상에게 적극적인 구성요소이지만 의미지향작용에게는 결여되어 있다.²²⁾

가득참은 의미지향작용에게는 결여되어 있지만 직관에게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동일한 대상이 의미지향작용과 직관 양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의미지향작용과 직관 양자의 질과 질료는 동일하다. 하지만 질과 질료가 동일하고 따라서 대상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해서 두 대상은 동일한 것일까? 동일한 질과 질료를 가진 의미지향작용과 직관은 물론 동일한 의미를 가진 대상과 관계한다. 하지만 대상은 대상의 의미 외에 또 하나의 계기를 지니는데, 그것은 대상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와 관련된 계기다. 따라서 직관과 의미지향작용의 차이는 대상의 의미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대상의 생생함의 차이에 관계한다. 이러한 대상의 생생함의 차이에 관계하는 작용의 지향적 계기가 곧 가득참이다. 의미지향작용은 이 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만 비어있는 것이며, 직관은 이 계기가 차 있다.

가득참이라는 지향적 계기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대상의 의미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그것은 오직 대상이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가 아닌가에만 관계한다. 나는 우선 나무를 다만 사고 속에서 사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나무를 직접 볼 수 있다. 이때 이 두 지향이 각각 관계하는 나무는 어떻게 다른가? 의미의 차원에서 보면 두 나무는 동일한 것이며, 오히려 사고된 나무가 직접 지각한 나무보다 더 완벽히 나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각된 나무는 나의 위치와 시계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며 따라서 어떤 혼란이 작동하고 있는 대신 사고된 나무는 명료하고 완전하며, 나의 감각과 위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나무는 전혀 다른 존재론적 위상을 지닌다.

22) Ibid., p.608.

(2) 가득참의 정도에 따른 표상들의 계열화

인식에게 개별적 직관들은 직관적 내용, 혹은 가득참의 정도에 따른 가치를 지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관은 대상의 전체에서 볼 때, 항상 “직관적 내용”과 “의미적 내용”의 혼합물로 나타난다. 후설은 다시 직관적 내용을 그림지각의 감각내용인 “상상적 내용”과 지각의 감각내용이 되는 “지각적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설은 다음과 같이 전체 직관을 계열화한다. 한쪽의 극한에 모든 내용이 직관적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상을, 그리고 반대쪽 극한에는 모든 내용이 의미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표상을, 다시 말해 한쪽 극에는 순수한 직관을, 또 한쪽 극에는 순수한 의미작용을 놓을 수 있다. 대개의 직관은 이 사이에 있는 혼합된 직관들이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직관적 내용을 i , 의미적 내용을 s 로 표시했을 때 모든 작용의 내용은

$$i + s = 1$$

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극한적인 두 개의 경우, 즉 직관적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수 직관과 의미적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수 의미 작용은 각각

$$i = 1, s = 0$$

$$i = 0, s = 1$$

로 표시될 수 있다. 다시 순수한 직관의 한쪽 극에는 순수한 그림지각과 또 다른 극에는 순수한 지각이 각각 놓여 있는데, 순수한 그림지각은 직관적 내용이 오직 상상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대신 순수한 지각은 직관적 내용이 오직 지각적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직관은 순수한 그림지각과 순수한 지각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로 볼 수 있다. 지각적 내용을 w , 상상적 내용을 b

로 표시하면, 모든 직관적 표상은

$$w + b = 1$$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극한적인 두 개의 경우, 즉 순수 지각과 순수 그림지각도 이를 토대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후설은 다양한 직관들을 순수한 의미작용으로부터 순수한 지각 작용에 이르는 계열로 재구성한다. 이것은 가득참의 정도에 따른 연속적인 계열화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직관들은 독립적인 실체적 성격을 상실하고 인식 내에서 가득참의 정도에 따른 계열 속으로 해체된다.

3. 인식에서의 충족의 역학

(1) 파지적 보존(retentionales Erhalten)

인식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직관들은 인식 안에서 그 가득참의 정도에 따라 계열화되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직관의 한 극한적 형태로서의 순수한 의미적 작용으로부터 또 한쪽의 극한적 형태로서의 순수한 지각에 이르기까지의 표상의 계열화를 어떤 일련의 정도에 따른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표상들은 대상의 규정들이 직관적 내용으로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는 정도에 따라 하나의 계열을 이룰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가득참의 양적 차이이다.

이제 인식은 자신의 작업 수행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인식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직관들 안에서 길을 잃을 가능성이 없다. 인식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직관들이 강제하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인식 앞에는 우선 가득참이 제로인 의미지향작용이 놓여 있다. 이 지향은 직관이 가지고 있는 가득참을 공급받음으로써 최초의 증가의식을 갖는다. 이것은 직관의 가득참이 의미지향작용의 상관적 부분에 부분적으로 일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바로 인식은 이렇게 의미지향

된 부분과 직관된 부분의 일치에 대한 경험이다. 인식은 계속해서 다양한 직관들을 관통해 나감으로써 의미지향된 부분, 막연히 사념된 부분을 채워 나간다.

거기에는 현상학적으로 동일한 대상에 속하는 지각들의 계속적인 잇달아 일어남 속에서의 충족 혹은 동일화의 연속적인 흐름이 상응한다.²³⁾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도 인식 수행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 직관들이 대상과 관계할 때, 매 순간의 직관이 지니고 있는 가득침은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순간의 직관이 앞 순간의 직관보다 더 가득차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때 그때마다의 새로운 직관은 전체로서 앞 직관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충족시킨다고 말할 수 없다. 그때 그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직관들의 전체 계열은 반드시 목표, 즉 대상으로 더 가깝게 접근해 가고 있지는 않다. 나는 컵을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본다. 다음 순간 더 멀리서 보기도 한다. 뒤 표상이 앞 표상보다 더 가득차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매 순간 균형을 이룬다. 새로운 작용은 대상의 한 규정의 관점에서는 가득침이 더 풍부해졌지만, 다른 규정의 관점에서는 가득침을 잃는다.²⁴⁾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억되어야 한다.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충족의 과정은 동시에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비움의 과정이기도 하다.²⁵⁾

따라서 만약 이전의 개별적 직관에서 직관된 내용이 유실되어 버리고 만다면, 항상 인식은 새로운 직관적 내용을 관통해 나갈 뿐이기 때문에, 그가 최후로 지니는 내용은 마지막으로 실행된 개별적 직관

23) Ibid., p.590.

24) Ibid., p.599.

25) 『현상학적 심리학 강의』, p.9.

의 직관 내용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식은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개별적 직관에 구속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가능하면 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능하면 전체가 제일 잘 보이는 장소를 우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개별적 지각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전부가 될 수 있고, 다음 순간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인식은 개별적 직관을 인식 가치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수행 토대를 형성하였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식은 항상 이미 지나간 직관적 내용을 항상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관적인 내용의 보존을 통해 인식의 전체적인 수행은 개별적인 작용과 비교해 볼 때 인식의 가득참이 증가하는 방향을 가지게 된다. 매 순간 그때 그때마다의 직관은 가득참의 잃음과 얻음 사이에서 부침을 계속할 뿐이지만, 인식의 전체 종합은 매 순간의 가득참을 모아 지님으로써 결국 가득참은 증가를 겪게 된다. 따라서 총족은 연속적인 증가를 겪게 된다. 나중의 인식이 앞의 인식보다 더 가득차 있으며, 더 완전한 대상이 나타나게 한다. 대신 의미적 내용과 대상의 의미적 부분은 더 줄어들어 있다.

가득참이 개별적 직관을 따라 변화하고 있을 때, 인식에 의한 가득참의 종합은 곧 가득참의 증가를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기능에 의해, 즉 총족 계열의 질서와 그들의 작용을 지배하는 증가의 질서 속에서 가득참의 모든 나중의 작용이 더 풍부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 작용의 표상하는 내용은 증가하는 질서를 획득하게 된다. 점차적으로, 표상하는 내용은 가득참을 주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가득참을 주는 자로서 나타난다.²⁶⁾

가득참은 나타나는 즉시 사라지지 아니하고 인식 체험의 연속적인 이행 속에서 종합된다. 이러한 작용을 통하여 비로소 모든 총족의 연속적인 증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인식은 개별적인 직관으로부터

26) 『논리 연구Ⅱ/2』, p.616.

자유롭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적 시각이 대상의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든지, 즉 컵을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 쪽으로 돌려보든지 아니면 오른 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돌려보든지 개별적 직관이 수행되는 순서는 인식의 수행과는 무관하게 된다.

결국 인식 속에서 가득참이 보존됨으로써 충족은 항상 일종의 증가의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인식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개별적 직관이 가하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2) 기억 혹은 재인식

과거적 보존을 통해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대상이 비로소 인식될 수 있다. 인식은 개별적 직관들의 종합이 되며, 대상은 개별적 직관의 음영들의 총합으로서, 따라서 통일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통일체로서의 대상은 인식 활동이 끝나자마자 과거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다른 대상의 인식에 몰두할 수 있으며, 아예 인식 이외의 다른 활동에 몰두할 수도 있다. 이때, 이미 통일체로서 인식된 대상 전체와 나의 현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 사이는 다른 지향적 체험들로 채워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내가 나의 현재로부터 멀어졌다고 해서 이전의 인식 대상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면, 나의 의식은 항상 새롭게 현재 인식한 대상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우연히 이전에 인식했던 대상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전에 인식한 대상과는 무관한 새로운 사물을 인식하는 셈이 될 것이며, 현재의 인식 대상과의 일치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식은 결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며, 역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식 체험에 구속되고 말 것이다. 나는 며칠 전에 언덕을 오르막길로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나는 언덕을 내리막길로 경험할 수 있다. 만약 이전에 경험했던 오르막길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현재 언덕을 내리막길로만 경험할 것이다. 인식은 내가 현재 언덕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구속되고, 오르막

길이자 동시에 내리막길이기도 한 동일한 언덕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식이 파지를 통해 하나의 통일체로서 구성해낸 인식 대상은, 내가 지금 다른 대상에 몰두하고 있는 탓에 현재는 공허하게 되었지만 기억을 통해 언제든지 재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둘러보고 더 가까이 가보고 손을 만져보면서 이미 인식되었던 모든 측면을 다시 볼 수 있으며, 다시 경험할 수 있다. 그것들은 지각될 준비가 되어 있다.²⁷⁾

이렇게 자유롭게 이미 인식된 대상으로 되돌가 반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식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식 체험의 구속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 즉, 인식은 현재 주어진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고 그럼으로써 대상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취급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인식의 궁극적 목표이다.

V. 결론

인식은 곧 직관으로서, 그의 지향적 구조는 직관이 가지고 있는 지향적 구조와 동일하다.

하지만 대상을 그 자체로서 나타나게 하는 직관은 항상 혼합 표상이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혼합 표상으로서의 직관은 항상 의미 지향작용이 사념한 대상의 전체를 그 자체로 나타나게 하지 못한다. 직관은 항상 순수한 직관이 아니라 공허하게 사념하는 작용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식은 직관과 동일한 지향적 구조를 가지지만 그것으로는 인식의 현상학적 성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인식의 현상학적 성격은 인식 수행이 혼합 표상으로서의 직관을 통해 어떻게 대상 전

27) 『현상학적 심리학 강의』, p.10.

체를 그 자체로 나타나게 하는가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인식 수행은 혼합 표상으로서의 직관을 토대로 대상 전체에 대한 자기 소여에 도달하여야 한다. 인식 수행은 무한하게 다양한 직관들을 관통해 나감으로서 이러한 자신의 목표에 이를 수 있다. 이때, 인식 수행은 다양한 직관들이 가하는 위험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직관들은 명증적인 자기 동일적 대상을 향하고자 하는 인식의 수행 노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식 수행은 자신을 다양한 직관들에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지는 않는다. 인식 수행은 자신의 수행을 위한 토대로서 다양한 직관들을 자신의 목표와 관점에 따라 추상화한다. 이때, 다양한 직관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득참의 양적 가치에 따라 규정된다. 인식은 명증적 대상 인식을 위해 필요한 가득참을 직관으로부터 얻어내지만 다양한 직관들에 사로잡힐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의 개별적 직관에 사로잡혀 그것을 곧 인식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 하나의 개별적 직관은 내가 사념한 의미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하나의 직관만으로 인식된 대상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식의 전체적인 노력 속에, 즉, 전체적인 충족의 증가 계열 속에 직관이 배치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나의 직관은 항상 혼합된 표상으로서 더 이상의 충족을 요구한다는 사실, 따라서 인식 수행의 목적론적 배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비로소 충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 수행의 '목적론적 배치로부터 떨어져 나온 개별적인 직관은 단지 의미 사념을 위한 조력수단으로서 기능할 뿐이다. 인식은 항상 개별적 직관들의 목적론적 종합이다. 직관들은 항상 이 목적론적 종합 속에서 다른 직관을 지시하는 자로서, 동시에 가득참의 양적 가치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인식을 수행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직관과 개별적인 음영에 과도한 무게를 두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종합의 한 계기들일 뿐이다. 전체적인 종합을 주목하면서 개별적인 음영을 지시관계의 지절(Glied)로서, 그리고 인식론적 가치로 해체해야 한다. 만약 개별적인 직관과 음영에 과도한 무게를 두고 거기에 주의를 집중한다면, 개별적인 직관은 인식의 전체적인 수행

안에서 의미지향작용의 충족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즉, 인식은 원래의 목적, 즉 주어진 의미의 충족을 중단하고 개별 직관 자체가 촉발하는 다른 형태의 지시관계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 인식은 자신의 원래의 목적, 즉 의미의 충족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직관이 주는 다양한 촉발의 가능성을 의미충족을 위해서 차단하고 충족을 위한 수단이자 가치로 다루고 그 실체적 성격은 탈취해야 한다.

또한 인식은 가독함의 가치로서 평가된 다양한 직관들을 관통하면서 수행되지만 동시에 이 가치들을 모으고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은 맨 마지막에 수행된 개별적 직관과 동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인식은 일련의 직관의 계열을 통과함으로써 의미지향작용을 충족시키지만 이 충족은 단지 항상 새로운 충족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충족은 연속적인 증가를 겪는다는 사실이 인식 수행의 의미이다. 이를 통해 비로소 인식은 자신의 목표에 이를 수 있고 개별적 직관이 가하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와 진다.

더 나아가 인식은 이미 수행된 인식과 인식의 대상 전체를 재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식은 현재의 인식 대상과 과거의 인식 대상사이의 일치를 경험함으로써 현재의 인식 대상이 가하는 구속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대상을 다룰 수 있게 되며,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인식이 혼합 표상으로서의 직관을 수단으로 대상 전체에 대한 자기 소여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별적 직관과의 거리가 필수적이다. 인식은 다양한 개별 직관이 가져오는 대상의 나타남을 통해서 대상 전체에 관한 나타남에 이를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마다의 나타남들, 음영들 사이에 대상의 자기 소여를 향한 목적론적인 지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필, 『진리의 현상학』, 서광사, 1993.
- 이남인, 「발생적 현상학과 지향성 개념의 변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의식 지향성』, 한국 현상학회 편, 서광사, 1992.
- 한전숙, 『현상학』, 민음사, 1996.
- Bernet, R., Kern, I., Marbach, E., *Edmund Husserl. Darstellung seines Denkens*, Felix Meiner, Hamburg, 1989.
- , “Bedeutung und intentionales Bewußtsein. Husserls Begriff des Bedeutungsphänomens”, *Phänomenologische Forschungen Bd. 10*, Ernst Wolfgang Orth. Alber. 1979.
- Derrida, J., *Speech and Phänomena* Tr. David B. Allison. Newton Garver. NUP. 1973.
- Heffnan George. *Bedeutung und Evidenz bei Edmund Husserl.* Bouvier, 1983.
- Heidegger, M., *Prolegomena zur Geschichte des Zeitbegriffs*, V. Klostermann, Frankfurt a.M., 1979.
- Landgrebe, L., *Der Weg der Phänomenologie* Güntersloher Verlagshaus, 1971.
- Levinas, E., *The Theory of Intuition in Husserl's Phenomenology*, Tr. André Orianne, NUP, 1995.
- Edmund Husserl's Logical Investigations*, edited by Mohanty, J. N., Martinus Nijhoff The Hague, 1997.
- Pietersma, H., *Phenomenological Epistemology*, OUP, 2000.
- Theodore De Boer, *The Development of Husserl's Thought*, Tr. Theodore Plantinga, 최경호 옮김, 『후설 사상의 발달』, 경문사, 1986.
- Welton, D., *The Origins of Meaning*,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3.